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선물하신 챔피언 벨트였어요”

-4전5기의 복싱신화 홍수환 선수 인터뷰 - (인터넷신문 “일요사사”)

(사진: 21년만에 파나마에서 만나 의형제를 맺은 홍수환과 카라스키야)



▲요즈음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프로복싱 후배들에게 할 말은?

“다들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들 하는데 전이젠 다른 생각입니다. 크리스천 정신이 부족한거죠! 복싱계가 거짓이 만연해 있다는 뜻입니다. 선수가 피땀 흘려 번 돈이 선수를 위해 사용되어지지 않고 그 주변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근황은?

“먼저 우리 아들을 훌륭한 프로복서로 키우기 위해 같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하고 재주 없는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연중 200 여 교회를 방문해 신앙간증을 하고 있지요. 교만하고 무절제했던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하루를 열흘같이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고향이 이북 신의주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천막을 쳐 놓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마치 신약의 초대 교회처럼 말이지요. 또 우연일진 몰라도 제가 태어난 곳이 예배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절 택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1996년 12월 29일 아내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시다. 세계챔피언에 2번이나 올랐을 때도 울지 않던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특히 가수였던 동생 홍수철(장로회신학대3년)이 부른 '나의 고백'을 들을 때 그 동안의 삶이 헛되었음을 깨닫고,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절 사용하려고 챔피언벨트를 미리 선물한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홀리필드가 왜 타이슨을 이기는 줄 아세요? 그것은 홀리필드라는 이름이 '거룩한 땅'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세상과 다투며 살아온 인생이 덧없게 느껴지던 홍수환선수는 1996년 예수를 영접했다고 한다. 지금은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을 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땐 그랬지▶ 4전5기 홍수환 선수

1977년 파나마의 카라스키야에게 네 번 다운을 당한 뒤 오투기처럼 일어나 3회에 KO승을 거두는 모습은 언제봐도 질리지 않는 명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을 벗고 막 일어나는 대한민국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를 주었던 한판 승부였습니다. 얼마전 TV에 비쳐진 그의 벗겨진 머리에서 천하의 복서도 세월만은 비껴가지 못했음을 보았습니다. 눈과 귀를 TV 앞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던 그 장면, 까랑까랑한 박병학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다시 보고픈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비보 같은 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13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3월 28일
☎520-9464, 369-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ca.to		

“Passion of the Christ”

김성국



내 몸에 제사장의 피가 흐르고 있나봅니다
아내는 영화를 보며 연신 우는데
나는 박히는 쇠 채찍질조차
의연하게 마지막까지 보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내 몸에 베드로의 피도 흐르고 있나봅니다
함께 깨어있어 달라는 그 절박한 갓세마네의 읍소에
태평스레 잠이 든 그 제자
나도 그 험한 장면 나오기 전에
내 영화보기 습관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 몸에는 구레네 시몬의 피도 흐르나봅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진 그 분 향해

“Almost there! Almost done”

이제 다 왔으니 차라리 이런 고통이면
빨리 숨이 끊어지는 게 나을 거라는 구레네 시몬의 속삭임
그것은 내가 하고픈 말 이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뒤집혀진 십자가 아래 사이로 보이던 막달라 마리아,
들을 든 자칭 의인들 앞에
무질서하게 엎드려진 간음녀의 떨림으로 떠올랐지만
그녀가 전직 창기라 한대도
내게는 성스러운 나의 어머니며 누이였습니다.

새벽으로 넘어간 심야 영화관
아내와 함께 나설 때는
아무얘기도, 눈도 마주치지 말아야
그나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마지막 마음일 것 같았습니다

◀남편 기 살리는 말▶

“당신은 다른 남자들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기 죽이는 말(절대 해선 안될 말)▶

“난 참 복도 없지!”

◀아내 기 살리는 말▶

“언제 이런 것까지 다 배웠어?
대단하네”

◀기 죽이는 말(절대 해선 안될 말)▶

“내 그럴 줄 알았어”

